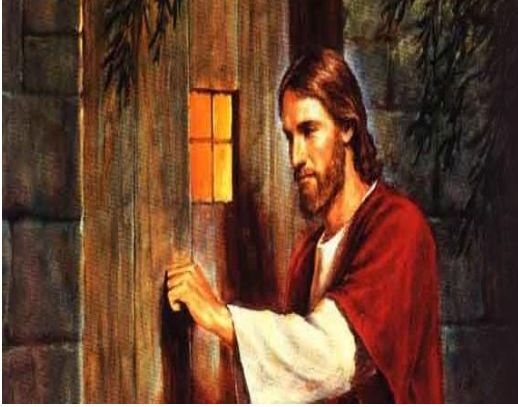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9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월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8월]



복음화 지향 :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지냈던 것과 같은 믿음이 타오르게 하시어, 아버지의 시간을 깨어 기다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화답송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ㄴ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2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32-48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영성체 후 묵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속에 죽어 간 옛사람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10 회 - 의정부교구가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4) ♣

어느 본당의 사목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사목회와 총구역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을 합니다. 이날 김장에 사용하는 비용은 참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합니다. 김치를 마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김장을 해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어 직접 우리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기부를 합니다. 김장날은 성당 마당이 왁자지껄합니다. 다들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때문이지요. 신부님도 거드십니다. 김장을 마치면 김치를 통에 담아 배달합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신자분들,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본당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직접 김치통을 들고 찾아가면 그분들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고마워하십니다. 배달을 마치고 성당에 돌아오면 신부님이 자장면을 사십니다. 성당 식구들이 다같이 김장을 하다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김장에 참여하지 못할 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함께 걷어가는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의정부교구에는 ‘천사회’라는 모임을 가진 본당이 여럿 있습니다. ‘천사회’라는 이름에서 이미 이 모임이 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본당과 지역사회의 힘든 이웃들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신부님도 모임에 함께 하지만 대부분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천사회는 본당 신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 시간이 안 되는 회원은 후원금을 냅니다. 시간이 되는 신자들은 반찬을 만들거나 배달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환경보호, 새터민, 난민을 돌보는 활동도 합니다. 활동하는 양은 그야말로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각자가 기쁘게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사회가 있는 본당에서는 ‘최대한 많은 신자가 작지만 기쁘게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봉사에 참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진행단계 | | 내용 |
|------|-----------|-------------------|
| 1단계 | 성찰하기 | 개인별 ‘시노드’ 경험 떠올리기 |
| 2단계 | 나누기 | 시노드 경험 모으기 |
| 3단계 | 생각하고 되새기기 | 성령과 함께 바라보기 |
| 4단계 | 묵상하기 | 10가지 핵심주제로 재해석하기 |
| 5단계 | 제안하기 | 시노드 교회를 위해 제안하기 |

| 연중 제 19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최후의 심판’(부분)
한스 멤링 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루카 12,40).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모 승천 대축일(8 월 15 일) 미사 안내

일시 및 장소 : 8 월 15 일(월) 오후 7 시, 아란다 성당(St Vincent de Paul Church), 미사 후 간식 나눔

호주 공의회(Plenary Council) - 대교구가 나아갈 길 '함께 걷어가는 해(Year of walking together)'

크리스토퍼 주교님께서 서한(번역문 후보 별지 참고)을 통해 시노드와 관련한 호주 지역의 공의회 결과 및 '함께 걷어가는 해'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7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 (1) 정기적으로 미사 후 신자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기회 장려
- (2) 갈롱(Galong) 마리아 프로세션 순례, 골번 베드로 바오로 대성전 봉헌식과 리오프닝 등 교구 차원의 행사 참여
- (3) 피조물 보호를 위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관심
- (4) 리멤버런스데이(11 월 11 일), 안락데이(4 월 25 일), 나이독 주간(NAIDOC Week), 본당·학교 후보 성인 축일을 지내면서 본당과 학교, 공동체간의 긴밀하게 연결과 소통
- (5) 함께 걷어가는 해 고유기도문, 미사 전후 봉헌
- (6) 교구의 연간단위 행사들을 달력으로 정리
- (7) 본당 차원에서 학교와 공동체 행사 등을 미리 조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및 모금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2 년 8 월 21 일(주일) 주일미사 후, 성당 및 오라나 교육관
- 행사 구성 : 음식나눔(비빔밥), 바자회
- 후원 및 봉사 : 바자회에서 판매될 생활용품 및 식음료 기부, 행사지원금 후원,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봉사
- 문의 : 서은주 데레사, 허준 안토니오, 각 소공동체 반장
- ※ 행사지원금 후원 : 공동체 교무금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성전 입구 교무금함 - 'Youth Support' 지향과 '이름' 기재
- ※ 물품 기부 및 지원금 후원 마감일 : 8 월 14 일(주일)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인 '2022 시그니스 세계 총회(SIGNIS World Congress 2022 Seoul)'가 이달 16 일(화)부터 18 일(목)까지 사흘 동안 서강대학교정하상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미디어를 통한 복음화를 실천하는 시그니스는 바티칸 교황청 공인 단체로 4 년마다 총회를 열어 왔으며, 올해 행사는 코로나 19 유행 여파로 개최 시기가 1 년 미뤄져 열리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특별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폭력과 침략의 발발로 특징지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여러분이 세계 총회의 주제로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고립의 외로움'을 달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온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결속하는 데 이번 행사가 큰 계기가 돼줄 것으로 기대하셨습니다.

올해 행사에선 시그니스 세계 총회 이사회는 물론 국제 언론인 포럼, 국제 청년 포럼을 통해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등록 링크(국문): <http://www.swc2022.net/?ckattempt=1>

안내 및 등록 링크(영문): <https://www.signisasia.net/signis-world-congress-2022/>



[홍보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교황님 메시지 읽기 - 이미지 클릭]

| 연중 제 19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⑧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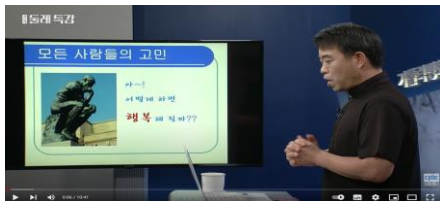
하루 1시간 소등하기(형광등 6개 기준)

→ 1.25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TV 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둘레특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이 영상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이금재 마르코 신부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꿀팁가이드]

1 열왕 17 - 2 열왕 12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엘리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바로로딸복스앤미디어

시노달리타스 미니 강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 | | | |
|----------|-------------|----------|-------------|
| 7 월 24 일 | 성인 39 아이 11 | 7 월 31 일 | 성인 37 아이 12 |
|----------|-------------|----------|-------------|

□ 우리들의 정성 (7 월 30 일(토)~8 월 5 일(금))

| | | | | | | | |
|--|-----|-----|-----|-----------------------------|-----|-----|-----|
| 구민식 | 권요순 | 김요한 | 김천주 | 남궁영근 | 양홍석 | 윤현태 | 이국원 |
| 이지영 | 장호훈 | 전인철 | 주정자 | 교무금 \$625 (12 가정) 봉헌금 \$245 | | | |
|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후원금 : \$50 (이상명), 누적모금액 : \$350 / 감사헌금 : \$200 (김우경) | | | | | | | |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8 월 7 일, 연중 제 19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8 월 14 일, 연중 제 20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8 월 7 일) 마태오반 → (14 일) 루카반 → (21 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 (8 월 7 일) 요한반 → (21 일) 성당 바자회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경록 도미니코(요한반, 8 일), 김제인 글라라(초등), 이승아 클라라(고등), 김연란 클라라·이민정 글라라(마르코반), 김수현 수산나(요한반) (이상 11 일)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신앙 수기 공모에 참여해주신 박순덕 베로니카 자매님, 임채숙 마리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수기는 이번 주 주보 별지와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53>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